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짓밟히고, 자녀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팀을 만드셨다.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운 거룩한 팀(Holy Team)이었다. 그들이 훗날 무너진 교회와 성전을 다시 세우는 홀리 메이슨(Holy Mason)이 되고, 포로로 간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으며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홀리 리더(Holy Leader)가 되고, 그들이 누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답과 축복을 온 세상에 전달한 홀리 디아스포라(Holy Diaspora)가 된다.

이들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의 증인들이 된 것이다.

지난 3주 동안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통해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붙잡았고, 그로부터 수십년 뒤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일어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헌신이 이렇게 미래를 움직이는 것이다

1.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렘넌트들을 왜 이렇게 축복해야 하는가? 적어도 세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잡아라.

1)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렘넌트가 붙잡을 다섯 정체성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과 사단으로 인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재앙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계시고(3시대), 그때에 증인으로 쓰임 받을 자들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심으셨고, 우리를 영적 씨앗으로, 237 살릴 디아스포라로, 진도제자 쓰시겠다는 것이다.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남는 자, 남을 자, 남기는 자가 된다.

2) 그것이 시대의 절대적 요청이다. 렘넌트가 붙잡을 시대의 축복과 미션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로 서야 하고(플랫폼), 그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하고(파수망대), 누군가는 하나님의 답과 축복을 전달할 자로 서야 한다(안테나).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과 같다. 왜 없었을까?

이 시대에 가장 작은 자요(사60:21-22), 자랑할 것이 없는(고전1:26-29)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다.

3)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이다. 렘넌트가 붙잡을 영원한 시간표이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에는 끝이 올 것이라고 했다(마24:14).

그 다음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다.

올바른 답을 전달해주지 않으니 틀린 답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명상 운동, 기 운동, 드라마, 영화)

2.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니엘이

뜻을 세웠고(8절), 세 친구들이 그 뜻에 함께 한 것이다. 그 속에 적어도 세가지의 의미가 있다.

1) 선택이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어려운 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이 특혜를 받는 기회 아닌 기회가 온 것이다.

기회는 세상도 줄 수 있고, 마귀도 줄 수 있고(마4:8-9),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

(1)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모든 것(응답, 축복, 미래, 후대까지)을 좌우한다.

우상 가득한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가나안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결과를 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의 선택의 결과를 안다. 기생 라합의 선택도 있다. 갈렙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헤브론을 선택한 결과도 있다.

(2)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으로 가는 인생을 7대 여정이라고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세가지 기준이다(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

①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롬12:2)이 무엇일까? 조금만 고민해도 답이 나온다(우상 문제)

② 모든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하라(롬14:23). 모든 의심, 원망, 불평은 불신앙이 되고,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된다.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감사로 해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살전5:16-18)

③ 모든 것을 복음의 기준으로 하라.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라는 것이다 .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누리는 것이고(롬1:16-17), 그 축복으로 살리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힘들고 무너진다. 우리의 의는 갈레와 같다(사64:6). 누구도 판단하고 싸울 자격이 없다. 원수도 살리는 중심으로 해보라. 스스로 무너지든지(롬12:20-21),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실 자가 된다(행9:15)

2) 집중이다(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데,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야 하는데, 그 힘이 없으면 못한다.

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 비우는 것으로 안 된다(명상). 그냥 비우면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고 했다(마12:44-45)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령충만이고, 기도 24이다.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그냥 분주하고, 혼미하고(고후4:4), 분열하고, 집착,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② 그때 우리 인생 속에 보좌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다(계8:3)

10일 만에 증거가 왔다. 얼굴이 빛이 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신하가 인정을 했다(14-15절).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지혜있는 사람이다. 나, 세상, 흑암 세력을 뛰어넘는 것이다.

3) 도전이다(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씨앗으로 서는 도전).

① 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도전이다. 이때에 기도할 결단을 하는 것이 도전이다 .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깨닫게 하셨다고 했다(17절).

결국 이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살리는 씨앗이 된다. 왕들이 이들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단3:28, 6:26).

나중에 다니엘은 기도 중에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다. 그것이 다니엘서이다.

②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이룬 씨앗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시대와 미래를 살릴 이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붙잡고 씨앗에 도전하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누리는 영적 씨앗,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능 씨앗과 전문성 씨앗이다.

237 나라와 오천중족을 살리기 위한 언어 씨앗, 문화(음악, 미디어, 영화)로 흐름을 바꾸는 문화 씨앗이다.

결론-하나님은 다가 올 미래를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준비해놓으셨다. 매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3 집중을 통해 힘을 얻으라. 3씨앗의 도전을 하며 한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한다.